

Food 에세이

직급이 낮을수록 퇴근을 먼저 하는 회사

한 정 훈

펍시코 본사 연구소

나는 지금 펍시코 본사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펍시코 고등기술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펍시코 본사의 문화는 위, 아래의 질서가 분명한 동양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양 회사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윗사람이 퇴근을 한 후에야 아랫사람이 퇴근하는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펍시코 본사는 완전히 거꾸로 된 문화가 있다. 제일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제일 말단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글로벌 기업의 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의식이 많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기 할 일만 하고 하루 8시간을 채우면 바로 퇴근한다. 이렇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하는 직원은 상당히 많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직원들이나 연구소 테크니션들은 모두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연장근무수당이 없는 봉급제 직원들에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직원이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막 학위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몇년간 하루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직원들로 분류된다. 회사에서 주식배당을 받고 전년도 성과급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받는 고위급 연봉제 직원이 되면 하루 8시간 업무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필요시에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펍시코에서는 높은 사람의 퇴근이 언제나 제일 늦게 된다.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테크니션들은 하던 일의 진행상황과는 상관없이 8시간만 지나면 바로 퇴근을 시작해서 오후 3시부터 하나 둘씩 퇴근한다. 일반적으로 4시쯤 되면 거의 모든 테크니션들이 퇴근을 한다. 5시쯤 되면 대다수의 직원이 퇴근을 한다. 6시까지 남아 있는 직원은 대부분 10호봉 이상의 직원들과 임원들이다. 펍시코는 직원 호봉이 최고 11호봉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10호봉 이상이라 함은 상당히 고위급 직원들이다.

어쨌보면 고위직이든 일반 직원이든 모두가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서로가 생각하는 자율은 무척 다르다. 8시간을 채우면 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루에 8시간을 채우면 되는 것이 자율이고, 고위층은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자율이다.

나는 펍시코의 일반 직원들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자율근무시간 신청서를 쓰지 않고도 자율근무제로 일하고 있다. 자율근무제란 근무 시간, 일시, 장소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자율근무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자율근무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일 8시간을 근무하거나 매일 9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즐기는 방식을 말한다. 자율근무일제는 토요일에 일을 하고 주중의 한 요일을 정하여 휴무하는 제도이고 자율근무장소제는 정해진 하루를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제도 모두 자율근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업무 스타일을 알아는 내 매니저는 내게 이런 행정업무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시간, 날짜, 장소에 대해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일을 하는 나의 특성도 고려해서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다. 물론 우리 팀에서 나만 이런 혜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 성과급으로 수입이 결정되는 연봉제 직원의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결정이다. 사실 나는 일년에 3주의 휴가가 있지만 거의 매년 3주의 휴가를 다쓰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자율 근무는 상기에서 제시된 단순한 시간, 일시, 장소의 자율근무는 아니다. 진정으로 책임감과 좋아함을 갖고 일 자체를 주인의식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다. 항상 손님보다는 주인이 자유로운 법이다.

내가 현재 근무하는 펍시코에서 일을 하기 전 캐나다에서 교수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수들은 하루에 한시간을 일할 때도 있지만 20시간을 일할 때도 있다. 많은 일을 하는 교수는 더 바쁘고 일을 적게 하는 교수는 덜 바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열심히 일하는 교수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느라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교수들의 대부분은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운전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잠자면서 업무와 관련된 꿈을 꾸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는 그들은 운전을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자율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 공부에 어렵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 자기 자신의 미래를 학교공부를 통해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루 8시간이, 그저 먹고 살기위해 억지로 일하는 근로자처럼 억지로 공부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학과의 정해진

공부를 통해, 스스로 그들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진정한 자율근무제 상태의 창의적 인간이 된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해 스승이다. 훌륭한 스승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훌륭한 스승이 되려면 우선, 우리는 그들의 사소한 개인적 상황까지 파악하여 그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주고 만들어 주는 그런 훌륭한 인사관리 매니저가 되어야 하겠다.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역할이 스승

이고 부모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만큼의 두려운 위치도 선생이고 부모이기도 하다. 마치 천사와 악마 모두가 항상 그럴 듯하게 속삭이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처럼 말이다. 우리는 과연 천사의 말을 들려 줄 것인가? 아니면 악마의 말을 들려 줄 것인가?

우선은 천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악마가 주는 재미있고 욕심나는 그런 제안에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부터 정하도록 하자. 천사의 목소리는 주인의식을 갖는 진정한 자율 근무를 외치고 있다.